

# 새별오름 일대 관광자원화 사업 '멋대로'

### 감사위, 2020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무 오일장 점포 관리도 부실... 총 82건 처분

제주시가 들불축제가 열리는 에월을 새별오름 일대에서 20여건의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차례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이 7500㎡ 이상 개발사업인 경우 사업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 사업자가 10년 이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에서 이미 승인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 승인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의 30% 이상이면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계획면적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2년 6월 진행된 기반조성·편의시설 사업은 사업면적이 8542㎡인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018년 이뤄진 기반시설공사의 경우 사업면적은 1만6763㎡로 그 해 감사위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그대로 공사를 시행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25건의 공사 중 단일 개발사업 면적이 7500㎡ 이상인 사업은 6건이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과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개발면적이 1만㎡ 이상 공사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7건의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들불축제장내 경관보전지구 2-3등급 지역에서 들담길을 조성하면서 받아야 할 경관심의도 받지 않는 등 개발과

정에서 여러 문제가 밝혀졌다. 공설시장인 오일장 점포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940개 오일장 점포 중 49개는 사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자체 소유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자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선 안된다. 그러나 오일시장 내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39명의 108개 점포 중 49개 점포를 전대해 타인이 영업 중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지자체가 20개 품목으로 나눠 점포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종합부 52개 소에서 목적과 다르게 대부분 식당영업이 이뤄지는데도 시는 매년 갱신허가를 내주고 있었다. 문미숙기자



제주시가 최근 재활용도움센터 이용객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시설물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사진은 오라동 재활용도움센터의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 “요일 관계없이 재활용도움센터 확대해야”

### 890명 대상 설문... 95% 만족 감량기·수거함 추가 설치 필요

제주시민들은 요일에 관계없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도움센터 이용 만족도는 95%로 높았고, 센터 내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로는 음식물처리시설(감량기)을 꼽았다. 제주시는 최근 37곳의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하는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4일 발표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8곳을 포함하면 모두 45곳에서 운영이 이뤄지게 된다.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64%, 만족 31%, 95%가 만족하다고 답했고 보통 4%, 불만족 1%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

유는 65%가 시간과 배송품목에 구애 받지 않고 배출이 편리해서라고 꼽았다. 불만족 이유로는 차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설물 고장이 잦아서라고 답했다. 재활용도움센터에 설치해야 할 시설물로는 음식물처리시설(감량기) 62%, 압축기가 33%로 많이 꼽혔고, 기타 시설물로는 폐식용유·아이스팩 수거함, 의류수거함도 있었다. 시는 현재 재활용도움센터 6곳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한 감량기를 설치해 티머리카드와 신용카드 병행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압축기는 현재 1곳에서 운영 중이다. 재활용도움센터 이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25%로 가장 많았고 40대 24%, 60대 이상 20%, 30대 19%, 20대 11%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발생장소는 공동주택이 49%로 절반을 차지했고 단독주택 38%, 상가 12%, 기타 1% 순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제주도 홈페이지 '새단장'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홈페이지를 새단장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최종 점검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은 도민들이 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정의 소식과 정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홈페이지 구조 개선을 통해 이용 시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고 플러그인 같은 비표준 기술을 제거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본인 확인 및 민간 I-PIN 외에 디지털 원패스와 포털사이트 및 SNS 계정을 이용한 본인 인증 방식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같은 비표준기술도 제거한다. 도는 홈페이지의 응답시간을 단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을 보강한다. 이어 통계포털, 제주안전체험관·제주국제안전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를 각각 구축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리뉴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규탁기자



손에 잡힐 듯한 우도 24일 제주시 구좌읍 중달리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청명하게 펼쳐진 우도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이상규기자

## 소상공 여행업체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 도, 개발공사 기부금 활용 내달 11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여행업체에 재난지원금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개발공사가 기부한 200억원을 활용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

체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쇄회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다. 신청은 25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이뤄지며 접수창구는 제주웰컴센터에 마련된다. 서귀포지역 업체의 경우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를 방문

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2월 2일까지 3부제로 업체별로는 일반여행업(월·수), 국내여행업(화·목), 국외여행업(수·금) 등이다. 12월 3일부터는 미신청업체에 대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이다. 신청 접수 및 문의는 재난지원금 접수창구(740-6935-8), 제주시 관광진흥과(728-2783-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760-2863)를 통하면 된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 처분대상 농지 청문 실시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해 내달 1~4일 농지처분명령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서귀포시가 2018년 농지이용실태 정기 조사 대상 중 농지처분사무를 부과한 372필지를 대상으로 경작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사무를 이행한 건이 78필지, 처분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 처분명령이 유예된 건이 149필지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45필지는 이번 청문을 통

해 농지처분명령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주는 54필지로 모두 58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처분명령이 부과됐던 2016·2017년 농지이용실태 대상 중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8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청문을 통해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 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게 된다. 현영준기자 yjhyeon@ihalla.com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골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 감골 신묘종 분양

##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톤(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 감골묘목

##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반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 그랜드보청기

##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때행 혜택입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샵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에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총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백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